

EU 연구혁신 주간 동향 보고

<24.01.17, 한-EU연구협력센터>

○ 유럽의회, EU 이사회와 탄소중립산업법 빠른 합의 기대(1.16)

- EU는 앞으로 몇 주 안에 유럽 녹색 기술 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탄소중립산업법(NZIA)에 대한 합의에 도달할 것으로 기대

※ 다음 협상은 1월 22일과 2월 6일로 예정

- 탄소중립산업법은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보다 빠른 허가 등을 통해 투자를 촉진하고 생산을 가속화함으로써 2030년까지 유럽에서 EU의 전략적 탄소중립 기술의 40%를 제조하는 것을 목표로 함

※ 이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소법(IRA)에 대한 주요 대응 조치로써 제안됨

- 의회와 이사회는 환경론자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에너지와 탄소 포집저장기술이 동 법안의 기술 목록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

○ EU, 공동유럽학위(Joint European Degrees) 계획 논의(1.10)

- 집행위는 국가 간 공동 프로그램 제공을 원활히 하기 위해 유럽 공통 기준을 설정하는 '공동유럽학위'를 추진
- 이를 통해 회원국과 대학은 국가 학위와 함께 기준에 따라 자발적으로 '공동유럽학위'를 수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
- 이를 위해 집행위는 고등교육 부문 전반의 의견을 수렴(1.9~2.6)하고 있으며, EU 이사회에 '고등교육 분야의 유럽 품질 보증 및 인정 시스템'과 '고등교육 분야의 매력적이고 지속 가능한 직업'에 대한 권고를 채택할 것을 제안
-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'공동유럽학위'가 '24년도 EU의 우선순위에 있으며, 올해 집행위원회 추진 계획 중 하나라고 밝힘

○ EU, 유럽디지털인프라컨소시엄(EDIC)을 통해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협력 촉진(1.11)

- EU는 새로운 법적 프레임워크인 EDIC를 창설하여 EU 회원국들이 함께 협력하여 공유 디지털 인프라를 설치하도록 권장
- 이는 단일 회원국이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다국가 프로젝트의 이행을 지원하도록 설계되었으며, 자금 조정뿐만 아니라 공통 표준과 상호 운용성을 촉진하려는 의도도 있음
- 현재까지 공통 블록체인 인프라, 네트워크 로컬 디지털 트윈, 언어기술연합, 사이버보안 기술 아카데미, 모빌리티 및 물류 데이터, 게놈, 저작권 인프라 등에 대한 EDIC가 신청되었으며, 5개의 추가 제안이 논의 중

- ▲**호라이즌 유럽 클러스터5, EU 에너지 자립 자원 프로젝트에 1억 7천만 유로(1.11)**
 ▲**집행위, MSCA PF 펠로우 위한 지침 발간(1.15)** ▲**EU, 올해 말 2억 7,300만 유로 규모 엑사급 슈퍼컴퓨터 출범 계획에 따라 자체 마이크로프로세서 설계(1.11)**